

## 방통위 공무 국외 출장 결과

- UAE·터키와의 방송콘텐츠 교류 방안 논의 및 CABSAT 참관 등 -

- ◆ 기 간 : 2019. 3. 10.(일) ~ 3. 16.(토), 5박 7일
- ◆ 방문국가 : UAE(아부다비, 두바이), 터키(앙카라)

2019. 4.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세부 활동 .....	2
1. UAE 국가미디어위원회 미디어 이사 면담 .....	2
2. 아부다비 TV 최고 운영책임자 면담 .....	9
3. UAE 한국문화원 원장 면담 .....	17
4. CABSAT 관계자 면담 .....	19
5. CABSAT 참관 .....	23
6. 터키 라디오 TV 고등위원회 위원장 면담 .....	27
7. 터키 TRT(국영방송사) 부사장 면담 .....	33
8. 터키 문화관광부 차관 면담 .....	38
9. 터키 한국문화원 원장 면담 .....	42
III. 보도자료 .....	45

# I.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① UAE · 터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협력 및 방송콘텐츠 교류 등 한류 확산 방안 논의 등
- ② 2019 위성방송장비 박람회(CABSAT : Middle East International Cable Satellite Broadcast and Communications Exhibition)에 참가

2. 출장 국가 : UAE(아부다비, 두바이), 터키(앙카라)

3. 출장 기간 : '19년 3월 10일(일) ~ 3월 16일(토), 5박 7일

##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표 철 수
2	방송정책국	방송정책총괄과(행정사무관)	곽 동 엽
3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행정사무관)	권 혜 진
4	위원실	수행비서(행정사무관)	김 정 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영욱 책임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동행

## 5. 주요 활동

- (정부간 협력) UAE · 터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협력 및 방송 콘텐츠 교류 등 한류 확산 방안 논의 등
- (CABSAT 참관) 중동지역 등 최신 위성 · 방송 기술 동향 파악

##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소형, 터키 RTUK, TRT, 문화관광부)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 II. 세부 활동

### 1. UAE 국가미디어위원회 미디어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사 면담

□ 일 시 : '19. 3. 10(일), 12:30 ~ 14:00

□ 장 소 : 국가미디어위원회 사무실

□ 면담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권혜진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지은 통역사
- (한국문화원) 이준호 원장
- (NMC) 제이버 알람키(Jaber Al-Lamki) 미디어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사, 파티마 알 안사리(Fatema Al Ansari) 커뮤니케이션 부서장 등

□ 세부 면담내용

#### [ 미디어 콘텐츠 정책 ]

- (방통위) 귀 기관은 도서, 신문, 영화, 라디오 등 전체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세 가지 정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NMC) NMC는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규제를 하고 있음. 첫 번째는 UAE가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추진 한 분야는 디지털 미디어 규제 즉, 1인 미디어, SNS, 블로거 등 On-line 규제 등을 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함.

두 번째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외신에서 보도되는 UAE의 이미지, 위상 등을 제고시켜 국가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임.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동 등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소비하므로, 청소년 보호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방통위) 디지털 미디어 규제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넷플릭스,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 (NMC)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므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사업자와 논의하고 대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논의중임. UAE는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가치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봄.

또한, UAE에 들어오는 콘텐츠가 노인, 아동에게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지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실릴 수 있는지 논의 중이며, 이제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이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 중임.

- (방통위) 한국은 국내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제가 많음. 해외 사업자가 자료제출 요구에도 충분히 응하지 않고 있는데, UAE는 외국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함
- (NMC) UAE도 마찬가지로 문제 직면하고 있음. 특히, 국내사업자의 콘텐츠 품질이 넷플릭스에 비해 떨어지고, 넷플릭스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넷플

릭스로 옮겨가고 있음. 우리는 지역 사업자에 투자하여, 글로벌 플랫폼에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UAE는 사회 구성원이 200개 넘는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터키 드라마를 아랍어로 더빙한 방송을 보고 있음.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한 현상이며, 이는 우리의 도전 과제임. 우리는 방통위와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한국에서 홍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

- (방통위) 두 나라 콘텐츠 교류에 큰 관심이 있고, 양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중요한데, 2008년 방통위 상임위원이 MoU 추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NMC) NMC 위원장도 새로운 비전이나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공식적인 협력은 즉시 시작해도 좋을 것임. 한국과 UAE는 미디어, 원자력,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콘텐츠 교류 등 양국간의 협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함.
- (방통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UAE의 콘텐츠 활성화 정책은?
- (NMC) 주요 국가 수도에 UAE의 국가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음. 대부분은 부르즈 칼리파나 패라리 등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더 많은 자랑할 것이 있음. UAE 외교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직원을 런던에 처음 파견했음. 앞으로는 EU, 인도,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을 검토하고 있음. 파견할 적당한 직원을 찾아 훈련을 시켜서 보낼 예정임.

국가 브랜드를 가진 나라 중 한국을 좋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음. 삼성의 기술, 의료, 보건 등의 이미지가 좋음. 한국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자의 교류도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MoU에 포함하면 좋겠음.

- (방통위) 청소년 아동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를 어느 정도 제작하고 있는지?
- (NMC)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청소년들과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구현하려고 함. 3-18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음 3D, 어린이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채널이 별도로 있음. 청소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1인 방송하고 있음.
- (방통위) NMC 위원장께서 방통위 위원장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람. UAE는 일반 중동국가와 다르게 한국과 의료, 원전 등 분야에서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한국 국민에게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
- (NMC) 지난 2년간 NMC가 적극적 변화를 위해 활동을 해왔고, 우방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UAE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

예전에는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로 독일이나 미국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한국을 생각함. 한국의 의료기술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분야도 두 나라간 협력 관계가 굳건히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아랍에 대해 좋은 인식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 MoU는 양국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활동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음.

## [ 통신망 사용료 지불 관련 ]

- (방통위)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는지?
- (NMC) 망이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 논의 중에 있음.

## [ OTT 규제 현황 ]

- (방통위) OTT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두바이에 있는 MBC에는 비디오 스트리밍인 샤이드가 있는데 기존 방송사처럼 규제를 하는지?
- (NMC) 샤이드는 두바이에 위치한 MBC 그룹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부다비 TV도 온라인 플랫폼이 있음. MBC 그룹의 라이선스가 산하 기관에 적용됨. NMC는 콘텐츠 자체를 규제 하지 않으며, 자율 규제하고 있음. UAE는 유럽의 포용 정책을 중요시하며 부정적인 보도나 다양한 보도도 수용하고 있음.

라이선스와 더불어 TV나 영화의 나이 등급의 규제를 하고 있음. 몇 년 전에는 부적절한 장면을 편집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같은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고 할 수도 없음.

한가지 더 강조할 점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나 일본은 문화와 가치면에서 UAE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함. 한국 콘텐츠가 UAE에 수출됐을 때 문제가 된 적은 없음. 가족 존중, 어르신 곤경 등의 문화가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함. 이는 개방적인 서양 문화와는 다르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비슷하다고 생각함.



## [ UHD 방송 관련 ]

- (방통위) UHD 방송 계획은?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 IPTV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 (NMC) UHD 방송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음. 그리고 방송별 정확한 비중은 잘 모르나,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1년 반 전 청소년 3,500명을 대상으로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조사했는데 1위가 페이스북이었음. 그러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2200만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 [ 재난 방송 ]

- (방통위) 지진 등 재난 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NMC) 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음. 내무부 경찰청, 기상청 등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UAE는 홍수나 폭설은 없으나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300대의 차량 사고가 있어서 교훈을 얻었음. 라디오, 핸드폰 업체와 협력을 통해 알려줄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비행기 사고가 있을 때 라디오로 경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국가비상 위기관리청에서 기관 간 협력을 업무를 하고 있음.
- (방통위)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돌아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대해 좋은 방향을 만들 것임
- (NMC) 와주셔서 감사함.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음. 오늘의 회의가 양국의 콘텐츠를 서로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

※ 면담 후 NMC 요청으로 외신기자 클럽 개소식 장소 방문함



방문 및 면담 사진



외신기자 클럽 개소 장소 방문

## 2. UAE 아부다비 TV 최고 운영책임자 면담

□ 일 시 : '19. 3. 11(월), 10:50 ~ 12:20

□ 장 소 : 아부다비 TV 사무실

□ 면담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권혜진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지은 통역사
- (한국문화원) 이준호 원장
- (아부다비 TV) 하이DEM 알카씨리 아부다비 TV 최고 운영 책임자 등 9명

□ 세부 면담내용

### [ 방통위 소개 ]

- (아부다비 TV) 방통위에 대해 소개 부탁함
- (방통위) KCC는 한국의 미디어 중 방송과 관련된 규제기관이고 방송 라이선스, 정책, 행정 등을 담당함. 또한 통신분야의 이용자 이익에 대한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한국의 미디어, 방송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임

## [ 아부다비 TV 현황 ]

- (방통위) 아부다비TV가 국영인지 공영인지? 아부다비 TV의 운영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받는지?
  - (아부다비 TV) 100% 정부기관임,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무료 채널로 운영되나 일부 프리미엄 콘텐츠(스포츠 등)는 구독방식의 유료 채널이 존재함. 시청률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방통위) 아부다비TV 현황(조직, 매출, 시청률) 그리고 특별히 주력하는 콘텐츠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음
  - (아부다비 TV) 아부다비 TV는 아부다비의 가장 큰 미디어그룹중 하나로, 두바이에 위치한 MBC 등의 방송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스포츠, 오락 등을 포함한 5개의 채널을 운영 중임.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협력을 통해 2개의 관련 채널을 가지고 있음
- TV가 핵심 사업이지만 라디오, 출판, 디지털미디어, 제작까지 하고 있고, 정부 행사때는 중계부터 제작까지 직접함
- (방통위) 아부다비 TV는 해외에도 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아부다비 TV)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케이블TV는 아직 방송하고 있지 않음. 아부다비 TV의 위성은 전세계 95%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도 4개의

케이블과 위성 이종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DC 네트워크나 비스카이비 등 주요 사업자에서도 방송하고 있음.

- (방통위) 한국은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의 가입자가 적음. 앞으로 아부다비 TV가 노력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케이블 TV나 IPTV 채널로 진출했으면 좋겠음. 한국 국민이 UAE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함
- (아부다비 TV) 현재 한국에는 아부다비 TV를 방송하고 있지 않고 UAE 국민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락 콘텐츠가 한국에서 방송되었으면 좋겠음
- (방통위) 한국은 대표적인 2개의 공영방송이 있음(KBS, MBC). 한국의 공영방송과 콘텐츠를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국 공영방송과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함. 교류가 활발해지면 한국의 KBS 등에서 아부다비TV의 한국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임. 아부다비TV와 KBS의 콘텐츠 교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음
- (방통위) 아부다비 TV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나 가치를 요약해서 3가지만 설명해주시길 바람
- (아부다비 TV) 핵심목표는 정부의 목표와 같은 선상에 서는 것임. 우리는 콘텐츠를 통해 정부의 목표와 전략을 같이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정부의 주요행사를 보도하는 것이 있음.

- (아부다비 TV) 이외에도 시청자의 흥미 및 시청률을 위한 오락물에도 집중하고 있음. 정부의 다양한 목표와 전략 등 메시지를 콘텐츠를 통해 전달할 의무가 있지만 스포츠, 오락 등 상업성을 띄는 채널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방통위) 아부다비TV의 핵심목표가 정부 정책의 전달이라면 보도 분야에 주력할 것 같은데 맞는가?
- (아부다비 TV) 맞음. 뉴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뉴스를 국내외로 송출하고 있음. 뉴스는 TV와 라디오는 물론 신문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음

## [ 콘텐츠 정책 ]

- (방통위) NMC와의 회의 중 앞으로 양국의 미디어를 관장하는 기관의 협력강화를 위한 MOU를 논의하였음. 이 과정에서 아부다비 TV와 한국방송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아부다비 TV) 우리도 MOU를 체결하는 것에 긍정적이고 콘텐츠나 기술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생각하고 있음
- (방통위) 드라마, 음악, 스포츠, 청소년, 영화 등 다양한 오락 분야가 있고 세계 각국의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아부다비 TV가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 (아부다비 TV) 우선 우리의 실적을 위해 시청자의 관심 분야와 경쟁자의 방송편성 전략, 최근 방송콘텐츠의 트렌드 및 공공분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장에 어필할 수 있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제파트너(내셔널지오그래픽)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시청자를 유치하고 있고 3월에 마블과 디즈니와의 협력을 통해 시청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외에도 지역제작사와 걸프지역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 이집트와 협력하여 아랍권의 드라마 콘텐츠를 가져오고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펼치고 있음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콘텐츠를 선택할 때 UAE의 문화에 적합한지를 고려함. 어떤 콘텐츠는 공영방송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아부다비 TV) 한국이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부분에서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음. 앞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증동에 진출할 전략이 있는지?
- (방통위) 글로벌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MIPTV 등 국제행사에도 참가하고 있음. 한국 드라마는 가족중심적인 내용이 많아 UAE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UAE 진출기회를 가지기 위해 방송사에서 노력하고 있음. 향후 KCC와 NMC의 협력이 진전되면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아부다비 TV) 말씀하신 한국의 문화나 전통이 UAE와 유사하여 콘텐츠를 교류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보임

- (방통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족중심, 사극 콘텐츠의 일부는 필요하다면 아부다비 TV에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음. 의향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람. 아부다비 문화원과 협조하여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OTT 서비스 정책 ]

- (방통위) 아부다비 TV는 자체적으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유료서비스 인가?
- (아부다비 TV) 두개의 OTT 플랫폼이 있음. 통신사(Etisalat, DU)를 이용한 플랫폼과 앱을 이용한 구독형 플랫폼(스포츠 위주)이 있음. 예전 영국의 축구중계를 앱을 이용한 프리미엄서비스로 제공한 적이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사를 이용한 플랫폼은 아부다비TV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형태로 운영</li> <li>○ 앱을 이용한 플랫폼은 일부는 구독형(스포츠)이고 일부는 채널과 콘텐츠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형태임</li> </ul> |
|--|

OTT는 전체적으로 디지털미디어 전략에 포함시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된 유료TV 채널은 OSM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 UHD 관련 ]

- (방통위) 한국은 2017년부터 UHD 방송을 시작하였고,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UHD로 방송함. 아부다비TV의 UHD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아부다비 TV) 아부다비 TV는 2010년 HD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2년 내에 UHD 방송(IP4K)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한국의 5G 현황은 어떠한가?
- (방통위) 한국은 5G를 국가적으로 추진 중이며 4월 중에 정식 통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임
- (아부다비 TV) UAE도 비슷한 시기에 5G를 진행할 예정임. 한국은 UHD 지상파 방송이 나오고 있는가?
- (방통위)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UHD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2021년 까지 전국방송으로 확대할 예정임
- (아부다비 TV) 최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2K>4K>8K). 빠른 기술 전환을 고려한 5년 또는 10년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방통위) 한국은 정책기관과 방송사와 협의하여 전략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계획은 검토중임. 아부다비TV는 2년내 UHD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제작, 편집, 송출을 모두 포함한 완벽한 4K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가?
- (아부다비 TV) 2년 뒤에는 제작부터 송출까지 완벽한 4K 전환을 진행할 예정임
- (방통위) UAE와 한국은 빠른 인터넷환경을 가지고 있음. 한국 국민은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여 OTT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UAE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됨. KCC나 한국의 공영방송에 대해 궁금하거나 협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 (아부다비 TV) 가능하면 한국의 제작사(스튜디오)를 방문하여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 (방통위) 충분히 있고, 필요하다면 견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한국에는 큰 제작사(CJ, KBS 등)가 있음
- (방통위) 한국의 관심사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어 매우 감사하고 아부다비TV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방송사가 아부다비 TV와 협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차후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콘텐츠 교류, 방송사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음
- (아부다비 TV) 아부다비 TV와 한국의 공영방송과의 협력기회를 환영하고, 앞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함

※ 면담 후 아부다비 TV 스튜디오 견학 진행함



### 3. UAE 한국문화원 원장 면담

□ 일 시 : '19. 3. 11(월), 14:10 ~ 14:50

□ 장 소 : 한국문화원

□ 면담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권혜진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지은 통역사
- (한국문화원) 이준호 문화원장, 김은지 직원 등

□ 기관 개요

- 위 치 : 아부다비 Government Complex 內 (Twofour54 입주)
- 규 모 : 연면적 1,556m<sup>2</sup> \*1층 및 2층 2개층, 약 470평
- 시 설 : 전시실, 한식관, 다목적홀, 도서관, 강의실, 사무실 등 (상설전시실) 전통체험(사랑채), 문화콘텐츠(버추얼센터, 미디어라이브러리, K-Contents, 스타 레코딩, 스타윈도우, VR체험 등) (한식강의) 케이푸드 홍보 전시 및 강의시설(수라간) (문화강좌) 도서관 및 한국어·태권도 등 강의실(한마당홀 등)
- 직 원 : 문화원장 외 행정직원 7명(한국인 5, 외국인 2)
  - 한국콘텐츠진흥원 1명 및 세종학당 한국어강사(2명) 파견 근무

□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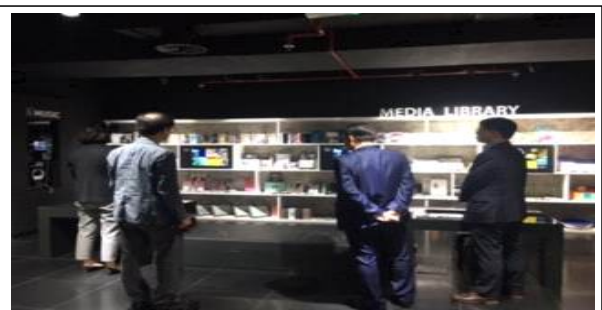
- 정기 전시 및 공연 외 문화원 시설 방문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상시 개방 공간 운영 : 상설전시실(1층) 및 도서관(2층)
- 정기 및 수시 한국문화 강좌 프로그램 : 월 평균 140여명
  - \* 세종학당 한국어 외 태권도/K-Pop 댄스/서예/규방·한지공예 등
- 문화예술기관 및 한류동호회 등 외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 \* 연방문화지식개발부, 아부다비 문화관광청(DCT), 연방교육부, Twofour54, NYU Abu Dhabi 아트센터, EMAKO, 한-UAE 친선협회 외 기타 한류동호회

## □ 세부 면담내용

- 아부다비 한국 문화원은 중동지역 최초의 한국문화원으로 2016년 개원하였으며 서적, K POP 같은 음악, 한식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 강습도 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인연은 원자력발전 건설, 의료 협력,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사업 등 SOC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드라마, K-POP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분위기임
  - 특히 드라마와 K-POP은 피상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심층적인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류의 시작은 드라마였으며 요즘은 K-POP이 선도하는 분위기임. 특히 20대 여성들이 한류에 적극적인데 20대 여성들로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게 한류가 확산되는 방식이 일반적임
  -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한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특색을 못 느끼는 장소에도 중동사람들에겐 매력으로 다가옴
- 한국문화원은 이제 시작된 한류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 노래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면담 사진



문화원 시설 견학

## 4. CABSAT 관계자 면담

- 일 시 : '19. 3. 12(월), 09:00 ~ 10:30
- 장 소 :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 사무실
- 면담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권혜진 사무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지은 통역사
  - (CABSAT 관계자) 마히르 압둘카림 수석 부사장(DWTC 총괄), 트릭시 수석 부사장(CABSAT 총괄)
- 세부 면담내용

### [ DWTC 관련 ]

- (방통위) 과거 한국의 장비업체나 콘텐츠업체가 CABSAT 전시회에 참석했지만 한국의 방송규제기관이 참석한 것은 처음임. 전체 전시장에서 몇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는가?
- (DWTC 관계자) 6개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400개 기업 13개 나라에서 왔음. 올해가 25주년 행사임
- (방통위) 전시회 운영 관련 UAE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는지?
- (DWTC 관계자) 우리는 준정부기관이고 비금전적인 지원을 계속 받고 있으며, UAE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이고, 6명의 이사회 이사가 있음

- (방통위) 이 전시장에서 이 행사 외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DWTC 관계자) 내년엔 열릴 엑스포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쇼핑몰도 엑스포 전시장에 들어갈 예정임. 외교부에서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은 우리의 수입분야 7위의 국가임
- (방통위) 한국에서 두바이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기관이 참석하게 된 것임
- (DWTC 관계자) 대개 전시관은 정부가 만들고 사기업이 운영하는데 반해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는 정부가 만들고 준정부기관이 건설과 운영을 모두 다 하는 특징이 있음
- (방통위) 올해 전시가 작년 전시와 달라진 점이나 발전된 점이 무엇인가?
- (CABSAT 관계자) 콘텐츠에 관심을 두고 있고, 방송산업의 시장여건이 조금 취약한데 내년엔 올해보다 더 콘텐츠에 관심을 둘 예정이며, E-스포츠와 E-게임에 더 비중을 둘 계획임
- (CABSAT 관계자) 행사에 영화상영 부분이 있고, 콘텐츠 관련 회의가 있으며, MBC와 넷플릭스의 경쟁자인 아이플렉스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사진도 요즘 떠오르는 부분임. 내년에는 SNS 1인방송에 더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비중을 넓힐 계획임
- (방통위) 400개 기업 중 장비분야와 콘텐츠 분야 기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 (CABSAT 관계자) 70-80개가 콘텐츠 기업이며, 위성방송 장비업체는 2개 구역에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음
- (방통위) 전시 중 콘텐츠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고,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음
- (CABSAT 관계자) 방통위나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으며,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확대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 회의가 많으므로 아프리카나 사우디 등과의 연결도 하고 있음
- (방통위) 아랍콘텐츠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로 이해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이런 이유로 한국의 방통위가 처음으로 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음
- (CABSAT 관계자) 방통위의 업무와 의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 KISA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보안도 관심이 많음
- (방통위)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하고, 통신분야와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정책,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대책, 방송광고 정책 등을 관장하는 정책기관임. 올해는 70-80개가 콘텐츠 기업이 참여했으면, 작년에는 콘텐츠 기업이 몇 개 정도 참여하였나?
- (CABSAT 관계자)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많을 것이며 지금 우리는 콘텐츠 기업을 많이 참여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방통위) 아랍에서는 드라마, 영화 등 어떤 분야의 방송장르에 관심이 많은지?

- (CABSAT 관계자) 여기는 인구가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많아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며 터키 등의 드라마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있음
- (방통위) 칸느의 MIPTV 행사의 경우 '올해의 주빈국' 행사를 기획하면 행사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사 개최시에 참고하기 바람
- (CABSAT 관계자)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기술 전시회에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콘텐츠 분야에도 이 아이디어를 도입하겠음
- (방통위) 귀국하면 한국의 방송사와 제작사에게도 이 전시회를 적극 홍보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주선하도록 하겠음.



면담 사진



단체 사진



## 5. CABSAT 참관

###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9 CABSAT(위성방송장비전시회)  
(Middle East International Cable Satellite Broadcast and Communications Exhibition)
- 일 시 : '19. 3. 12(화) 10:30 ~ 16:00
- 장소/주최 : 두바이 월드트레이드 센터(Dubai World Trade Centre)
- 전시품목 : TV&필름, 오디오, 위성, 디지털미디어, 사진, E-스포츠 등  
※ CABSAT 2018 참가현황 : 참가국 131개국, 참가기업 450개, 참석자 14,000여명

### □ 주요내용

- (전시회, 3.12.~14.) 3개의 부분(콘텐츠 제작, 포스트 프로덕션, 콘텐츠 배포) 및 6개 분야(TV&필름, 오디오, 위성, 디지털미디어, 사진, E-스포츠) 관련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 등 전시
  - (콘텐츠 제작) TV 영화 제작, 제작 스튜디오, 광고 대행사, 비디오 솔루션, 온라인 VOD, 필름 커미션
  - (콘텐츠 & 포스트 프로덕션) 콘텐츠 및 통신 인프라, 스토리지, 클라우드 및 미디어 보안, 증강·가상현실, 드론
  - (콘텐츠 배포 & 제공) 위성통신사업, 멀티스크린, 광대역, 네트워크 디자인, OTT/VOD/IPTV, 채널배포, 라이선싱
- (컨퍼런스, 3.12-14 11:00~17:00, 2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방송통신 및 위성 관련 현황 및 트렌드에 대해 논의
- (기타 부대 행사, 3.12-14) GVF 위성 허브 서밋(3.12~14, 3일), E-스포츠 파빌리온(3.12~13, 2일), 사진 워크숍(3.12~14, 3일) 등의 부대행사 진행



전시장 전경

□ 참가 기업 시연 및 전시내용

① X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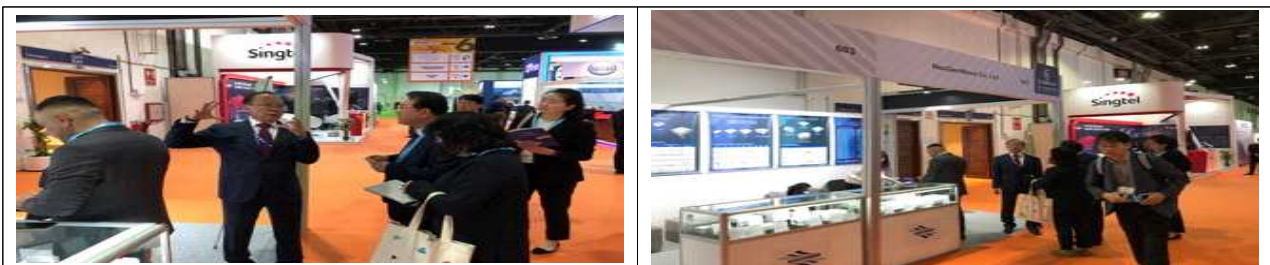
- 위성 송수신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한국기업으로 Ka-대역, 다중-대역, 다중/동시 대역 LNB 등 다양한 대역의 제품을 생산



- 위성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송신기와 수신기분야로. 이번에 처음으로 중동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참가

② 넥스젠웨이브

- 방송 신호를 송수신하는 위성, 커뮤니케이션 장비 개발 및 제작하는 한국 기업으로 주 고객은 해외 위성운영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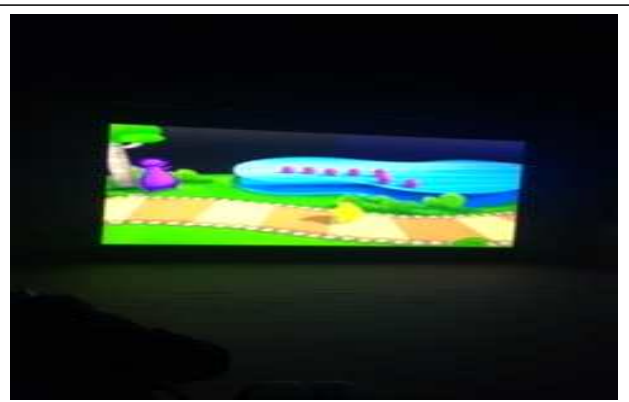
### ③ 한국관(Korea Pavilion)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국내 6개(채널A, CJ E&M, 그룹에이트, KBS 미디어, MBC, XrisP) 콘텐츠 제작 및 방송사가 참여하여 국내 콘텐츠 홍보 및 판매
  - 채널 A : 도시어부, 하트시그널, 열두밤
  - CJ E&M : 백일의 낭군님, 왕이된 남자, 비밀의 숲
  - 그룹에이트(group 8) : 사임당, 꽃보다 남자, 탐나는 도다
  - KBS 미디어 : 왼손잡이 아내, 비켜라 운명아, 하나뿐인 내편
  - MBC : 왕은 사랑이다, 아이템, 복면가왕
  - XrisP : NORI, The Story of Bookworm GOGO



### ④ Flix on 86

-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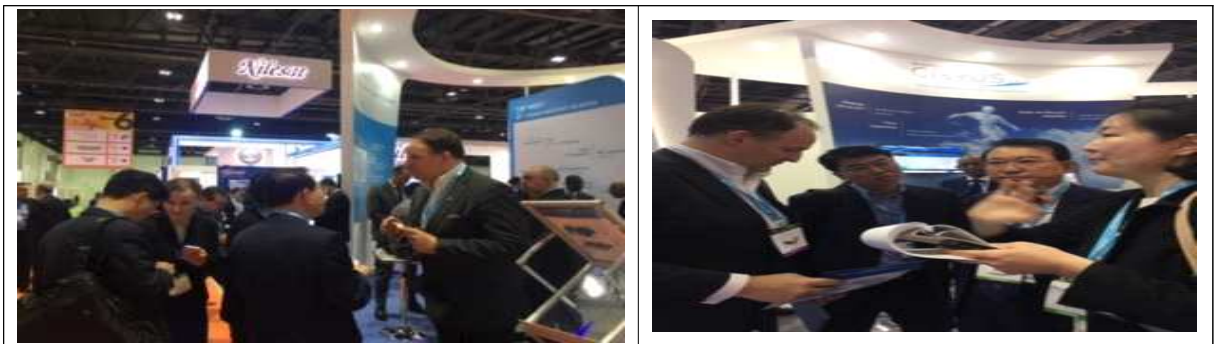
### ⑤ 미디어캐스트 블랙매직 디자인

- 두바이에 본사를 둔 전문 방송(오디오 및 비디오) 솔루션 유통 업체로 중동, 파키스탄 및 이집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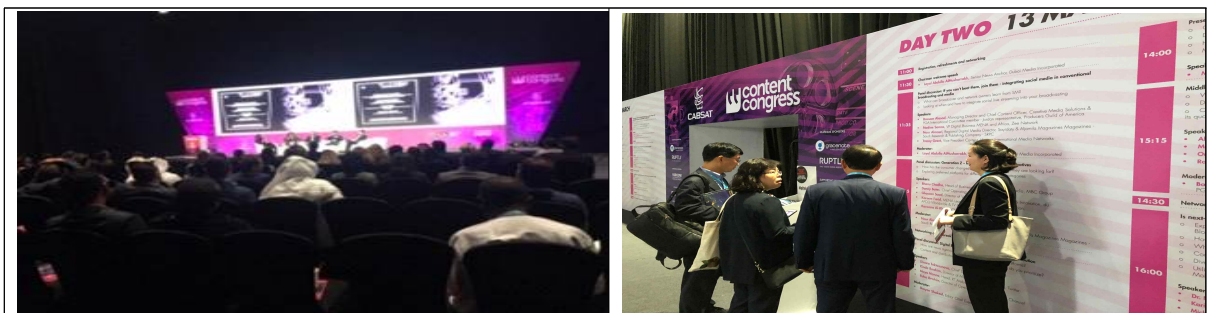
### ⑥ eutelsat

- 37개의 위성, 274백만 TV, 6900 TV 채널, 1400 HD 채널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위성운영사업자로 방송 및 미디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공중/해양 통신 등의 서비스 제공



### ⑦ content congress

- 업계 전문가들의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현황 및 트렌드 발표



## 6. 터키 라디오 TV 고등위원회(RTUK) 위원장 면담

□ 일 시 : '19. 3. 14(목), 09:15 ~ 11:00

□ 장 소 : 라디오TV 고등위원회(RTUK) 사무실

□ 면담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권혜진 사무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정수 한-터키어 통역사
- (주 터키 한국대사관) 박준형 참사관
- (RTUK) 에브베키르 샤흐(EBUBEKIR SAHKIN) 위원장, SADIK CANYURT, CAGLAYAN CAGLAR 등 7명

□ 세부 면담내용

### [ RTUK 현황 ]

- (방통위) RTUK의 정책목표 중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 3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RTUK) 법률에 의해 라디오, TV 규제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과거에는 판사로 구성된 기관이 방송관련 규제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RTUK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방송전반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인터넷 관련 규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어린이 및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임

미디어 교육은 어린이 및 여성의 미디어 이용방법(TV 시청시간, 유익한 방송)과 인터넷, SNS 등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음

- (방통위) 한국의 KCC와 RTUK의 기능이 유사함. KCC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 등에 대한 재승인, 재허가를 수행(3~5년)하고 있는데, RTUK도 해당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 (RTUK) RTUK는 10년 주기로 방송사 승인을 진행하고 있음

### [ 해외 OTT 대응 방안 ]

- (방통위) 최근 한국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의 규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RTUK) 터키의 콘텐츠 시장에 매우 크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터키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넷플릭스가 원하는 터키 콘텐츠가 무엇인지 중요하지만 터키의 정서(노인, 여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음
- (방통위) 터키 OTT 서비스와 해외 OTT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동일한 정책이 있는지? 넷플릭스가 터키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지 궁금함
- (RTUK) 특정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터키 국내 OTT와 해외 OTT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음. 망사용료는 현재는 지불하지 않고 있으나 준비 중인 규제가 시행되면 망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임.

## [ 가짜 뉴스 등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정책 ]

- (방통위) 인터넷상에 불법유해정보(도박, 음란물 등)를 차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 RTUK는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정책이 있는지?
- (RTUK) 터키에서도 불법 유행 정보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 사안은 RTUK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재하고 있음. 향후 RTUK에서 규제하는 방향을 추진중임
- (방통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가짜뉴스에 대해 삭제 명령이 있는지?
- (RTUK) 터키도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라디오, TV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신문은 별도의 기관이 담당함. 방송 전 규제는 하지 않고, 방송이후 사후 규제를 진행함. 벌금/방송금지/방송국 폐쇄 등이 가능함.

## [ 미디어 콘텐츠 관련 ]

- (방통위) 터키는 콘텐츠 강국으로 알고 있음. 콘텐츠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은?
- (RTUK)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에 가족드라마를 제작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세금면제 등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 (방통위) 한국은 가족중심의 드라마가 많음. KBS의 가족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가 터키에서 '바바 잔들'로 리메이크되어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이 한국 콘텐츠도 터키정서에 잘 맞아 향후 협력이 용이할 것임

- (RTUK) '바바 잔들'은 전 RTUK 위원장이 추진하여 터키에서도 호응이 좋았음
- (방통위) 2년 전 개봉한 터키 영화 '아일라'는 한국에서도 방영되었고 한국 국민이 큰 감명을 받았음
- (RTUK) 본인도 아일라를 매우 감명 깊게 보았음. 아일라의 주연인 군인 술레이만씨가 아일라 방영 전에 돌아가셔서 아쉬움
- (방통위) 영화 아일라 방영 전(2017년)에 한국의 공영방송 MBC가 '푸른 눈의 병사와 고아 소녀'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고 한국 국민의 호응이 좋았음

### **[ 공동제작 협정을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체 ]**

- (방통위) 2년 전 KCC-RTUK MOU 체결 이후 실무적 협력이 미비하였음. 이번 기회에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함
- (RTUK)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터키의 전문가가 양국을 방문하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음
- (방통위) 한국은 아시아 콘텐츠 강국이고 터키도 콘텐츠 강국이므로 양국의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RTUK) 법률관련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므로 문화관광부와 회의에서 해당내용을 논의해주면 좋겠음. 법적인 부분이 통과되면 RTUK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 수신료 정책 ]

- (방통위) 터키 방송의 수신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 (RTUK) 위성방송은 10년에 5만 유로를 RTUK에 내야함. 별도로 위성사용료로 약 만유로 정도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방통위) 일반 시청자(국민)가 공영방송사에 시청료를 내는가?
- (RTUK) 터키 공영방송인 TRT는 0.5유로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음

## [ 방송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

- (방통위) 6월 한국에서 진행되는 방송공동제작 컨퍼런스에 참가 해주시기를 희망함
- (RTUK) 가능하면 참석하겠음.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람.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협력을 기대함.
- (방통위)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6월에 방송공동제작컨퍼런스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음. 앞으로 국장급 실무 협의체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된다면 RTUK 위원장께서 KCC에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RTUK) 아직 한국은 방문한 적이 없음.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되도록 하겠음

※ 면담 후 RTUK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SKAAS) 견학



RTUK 면담 사진



RTUK SKAAS(방송모니터링 시스템) 견학

## 7. 터키 TRT(국영방송사) 부사장 면담

□ 일 시 : '19. 3. 14(목) 11:30 ~ 12:50

□ 장 소 : 국영방송사(TRT) 사무실

□ 참석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권혜진 사무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정수 한-터키어 통역사, 김지은 한-영 통역사

○ (주 터키 한국대사관) 박준형 참사관

○ (TRT) TUNCAY YUREKLI(툰자이 유렉크리) 부사장, ALi SAGLAM 뉴미디어채널 코디네이터, FURKAN GUNDOGAN TRT1 매니저, FARUK GUVEN TV부서 매니저, Dr. SABRi KIZILKAYA 국제관계부서장, BERNA BATMAZ 국제관계부서 매니저, GOKHAN KOYLU 국제관계부서 매니저 등 7명

○ (RTUK) SADIK CANYURT, CAGLAYAN CAGLAR 2명

□ 면담 세부 내용

### [ TRT 현황 등 ]

○ (방통위) TRT에 방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TRT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음

- (TRT) 한-터키 간 드라마 등 콘텐츠 교류에 감사함. '내손을 놓지마' 등 한국 콘텐츠가 터키에서 인기를 끌었음. 터키는 한국과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하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음. 한국과 드라마 분야에서 공동제작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음. TRT는 총 13개의 TV 채널(TRT1, TRT-Haber, TRT-WORLD, TRT-SPOR 등)과 14개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방통위) 한국의 공영방송은 공익성,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TRT가 국영방송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TRT) 공익을 위해 보편적 방송 제작에 주력(TRT 쿠르드, TRT-MUSIC 등)하고 있음. TRT2 채널을 통해 다큐멘터리, 문화 등 공익을 위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TRT 다르밋은 공익을 위한 대하드라마를 제작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음. 4월 23일 어린이날에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유아용 프로그램을 방송했음
- (방통위) TRT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 (TRT) 광고수입, 콘텐츠 수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수신료, 가전제품(TV,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음. 4번째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터키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이용을 위한 기기 구입 시 TRT에 세금의 일부를 주도록 되어있음
- (방통위) 재원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가?
- (TRT) 약 15~20%정도임. 금번 면담은 TRT 사장의 부재로(해외출장)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였음. 사장님도 한국의 방문단을 환대하셨을 것임. TRT에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방송 콘텐츠 ]

- (방통위) TRT 방송 콘텐츠 중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계콘텐츠 시장에서 터키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음. TRT에서 주력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는 무엇인가?
- (TRT) 과거 터키 드라마는 우연한 계기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였음. 초기에는 편당 100불 정도였으나 현재는 편당 약 50만 불 규모의 드라마도 제작됨. 터키는 세계시장에 약 3억 5천만 불의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음(수출규모 : 미국 1위, 터키 2위)
- (방통위) 터키 콘텐츠가 아직 한국에서 방송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진출계획이 있는지?
- (TRT) 한국 정서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고 마케팅 등 한국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한국 콘텐츠 3개(선덕여왕 등)와 방송 계약을 맺음
- (방통위) 한국과 터키는 가족적인 드라마를 선호하는 등 국민 정서가 비슷하여 콘텐츠 공동제작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TRT) 영화 '아일라'처럼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방통위) 2년 전 KCC는 RTUK와 MOU를 체결함. 오전 RTUK와의 회의에서 양국의 공동제작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음. 양국의 방송국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RT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람
- (TRT) RTUK는 방송분야 정책 및 규제 기관이지만 터키 현행법률 상 RTUK와 TRT는 동일선상에 있음. RTUK를 거치지 않고 KCC와 TRT간 직접 협력도 문제가 없으니 고려해 주시기 바람

- (방통위) KCC는 TRT와 한국 공영방송(KBS, MBC)과 협력을 위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음
- (TRT) TRT는 KBS는 물론 아리랑TV와도 협력 관계에 있음
- (방통위) 오늘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방송공동제작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주시기 희망함. 한국으로 돌아가면 공영 방송사(KBS, MBC)와의 협력에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음
- (방통위) 최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TRT에서 모바일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하는지?
- (TRT)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터키 문화의 특성상 모바일 보다는 TV 시청비율이 높음. 일반 콘텐츠 제작 시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함. 향후 모바일용 콘텐츠 개발을 고려중임
- (방통위) 한국은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기 적합한 짧은 드라마(5분) 등을 제작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음

## [ OTT 서비스 ]

- (방통위) 자체적으로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 (TRT) 2012년부터 OTT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HD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는 모바일 분야 OTT 서비스를 준비 중임
- (방통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 기업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 (TRT) 넷플릭스와 경쟁은 어렵겠지만 VOD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음

## [ 재난 방송 ]

- (방통위) 재난상황(자연재해, 테러 등)에 대한 방송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 한국은 정부에서 각 방송국으로 재난상황을 통보하면 반드시 방송하도록 체계화 되어 있음.
- (TRT) 터키는 별도기관에서 재난상황을 통보하고 해당내용을 반영. 한국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방송국으로 재난상황을 전달하는 체계는 없음.
- (방통위) 긴 시간동안 면담에 응해주신데 감사드리고 KCC나 한국 방송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TRT) 앞으로 한국과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구체적인 협력이 진전 되기를 기대함



방문 및 면담 사진

## 8. 터키 문화관광부 차관 면담

□ 일 시 : '19. 3. 14(목) 14:30 ~ 15:20

□ 장 소 : 문화관광부 사무실

□ 참석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곽동엽 사무관, 김정수 비서관, 권혜진 사무관, 박영욱 책임연구원(KISA), 김정수 한-터키어 통역사, 김지은 한-영 통역사
- (주 터키 한국대사관) 박준형 참사관
- (터키 문화관광부) 나디르 알파야슬란 차관, ULAS GONEN KIRLI, MAZHAR YASIN TUYLUOGLU, KEMAL UYSAL 등 5명
- (RTUK) SADIK CANYURK, CAGLAYAN CAGLAR

□ 세부 면담 내용

- (문화관광부) 터키 방문을 환영함. 터키는 천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영토로 이동하였지만, 한국과는 민족적,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그동안 관계를 유지해왔음
- (방통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도 터키와 형제애를 느끼고 있음



- (문화관광부) 오늘 여러 터키 기관을 방문하시고 문화관광부에 오신 걸로 알고 있음. 영화 '아일라'와 같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함
- (방통위) 한국에서도 영화 '아일라'를 감명 깊게 보았음
- (문화관광부) 한국과 터키는 문화가 유사하여 영화 쪽으로 협력이 기대됨. 터키 젊은층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매우 높아 관련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기대함
- (방통위) 이번 자리에서는 양국의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음
- (문화관광부) 우리도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음
- (방통위) 문화관광부는 방송 및 콘텐츠 관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부) 내외국 구분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음. 터키와 관련된 드라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TRT의 드라마 수출은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음
- (방통위) 2년 전 KCC-RTUK 간 MOU 체결 이후 실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질적인 협력 진행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 (문화관광부) RTUK와 논의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방통위) 한국 문체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방통위) 한-터키는 콘텐츠 강국이므로 공동제작 등 협력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 (문화관광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함
- (방통위) 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진흥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문화관광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음. 새로운 법안 이후 영화관련 대책을 수립중임
- (방통위) OTT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부) OTT도 지원하고 있음. 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 시 터키의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요 협력 대상국 여부임
- (방통위) 상호 협력을 위한 규정이나 정례회의가 있는지?
- (문화관광부) RTUK, TRT와 수시회의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영화진흥부서와도 협력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방통위) 한국과 체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함. 한국은 역사, 가족이 주요 드라마 소재임. 한국의 CJ가 터키 시네마분야에 진출하여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관광부) 터키와 한국의 협력을 넓게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방통위) 터키 콘텐츠의 한국진출 관련하여 공동제작 또는 콘텐츠 직접 진출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램
- (문화관광부) 양국의 공동제작 협력을 기대함
- (방통위) 한국 귀국 후에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추진했으면 좋겠음
- (문화관광부) 적극적인 협력진행 부탁드리고 RTUK, TRT, 문화관광부가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주시면 좋겠음
- (방통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KCC나 한국 방송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문화관광부) 앞으로 KCC, 한국문체부 등과 공동제작 등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문화 관광지인 터키에 더 많은 한국 국민인 방문해 주시길 바램



터키 문화 관광부 방문 및 면담 사진

## 9. 터키 한국문화원 원장 면담

□ 일 시 : '19. 3. 15(금) 10:30 ~ 11:10

□ 장 소 : 터키 앙카라 한국문화원

□ 참석자

-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 김정수 비서관, 곽동엽 사무관, 권혜진 사무관, (KISA) 박영욱 책임, (통역사) 김지은
- (터키 한국문화원) 조동우 원장, 세렌 곤츠

□ 기관 개요

층수	내 용	비 고
1층(로비)	공예전시실, 모임방, 카페테리아, 야외무대	
2층(도서관)	도서열람실, 멀티미디어코너, 독서실, 어린이도서관	
3층(강의실)	강의실(1,2,3), 유학상담실, 회의실, 교사실	
4층(공연장)	공연장, K-Pop연습실, 세미나실(1,2)로 구성	
5층(사무실)	원장실, 사무실(1,2), 전시실	
6층(귀빈실)	사랑방, VIP홀	

- 터키한국문화원은 전 세계 32개 한국문화원 중 22번째로 2011년 개장
  - 한국문화원은 가입된 회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별도의 조건이 없고 무료,(전체 회원 약 12,000명) 한 달에 약 4000명이 이용

- (도서관) 컴퓨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교민 자녀들이 주로 이용
- (강의실) 5개의 강의실에서 한국어, 서예, 화훼 수업 등을 진행, 터키인들은 서예수업에 관심이 많음.
- 터키인 대상 한국 유학 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2,000 명의 터키인이 상담을 받았고, 터키 내 세종학당은 4개 도시에 5개 운영 중임. 최근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되었음.



## □ 주요 논의 내용

- 터키의 한류는 TRT에서 한국드라마 방영으로 시작, 터키는 자막이 익숙하지 않아 더빙을 하며, 인기 있는 한국드라마는 대부분 TRT에서 방영됨
- 터키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음. 술을 먹지 않는 등 이슬람 문화의 특성상 TV시청이 매우 중요한 여가임
- 터키는 한국 사극 등 드라마가 터키문화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자주 방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터키도 한류 같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터키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K-POP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최근 터키정부에서 주요관광지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터키는 자신의 것을 알리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올해 1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에 터키 문화원이 생김.



터키 한국문화원 방문 및 면담

 방송통신위원회	<h1>보도자료</h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는 나은 정부
	2019년 3월 8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 2019.3.8.(금)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강필구 과 장(☎2110-1331)  
 권혜진 사무관(☎2110-1358, khj8216@korea.kr)

##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터키·UAE와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표철수 상임위원이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터키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여 방송환경 급변에 따른 방송분야 정책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터키의 방송 규제기관인 라디오·TV 고등위원회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터키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 양국 간 방송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터키의 국영 방송사 TRT를 방문하여 방송현안과 양국간 방송프로그램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중동 방송장비 국제 전시회인 2019 CABSAT(3.12~3.14)도 참관하여 중동지역 장비기술 현황 및 콘텐츠 동향 등을 파악하고, UAE 지상파 방송사 등을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CABSAT) 25년째 개최되는 중동의 대표적 방송산업 전문 전시회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성, 디지털 등 플랫폼과 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 송출 등 모든 단계에 관련된 기업이 참가하는 행사